

2023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

I. 2023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23년 2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수석연구원 김윤지 (02-6252-3607)





<요 약>

I. 2023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1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12.6%, 전기 대비로는 4.8% 감소

- 202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734억 달러) 대비 12.6%, 전분기(1,592억 달러) 대비로는 4.8% 감소한 1,515억 달러
- 글로벌 경기둔화, 반도체 업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 기록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이,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이 감소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3p 하락한 88

- 높은 생산원가 영향으로 수출채산성이 하락하고, 수출물량 평가도 하락해 전반적인 수출업황 하락 - 수출업황 평가지수가 9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년 2분기 이후 처음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94	90	91	88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94	92	91	88
수출단가 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105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114
수출물량 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97	89	91	83
자금사정 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94	93	96	94

- 수출채산성은 섬유, 신재생에너지, 철강/비철금속 등은 하락, 선박, 플랜트 등은 상승
- 수출물량은 해운, 섬유, 신재생에너지, 전기전자 등은 하락, 플랜트 등은 상승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 전자	기계류	철강 / 금속	석유 화학	자동차	섬유	플랜트 / 해건	신재생 에너지	선박	문화 콘텐츠	해운	대기업	중소 기업
'22.4Q	96	89	89	89	92	94	93	100	89	105	90	99	81
'23.1Q	91	90	89	85	92	74	100	86	102	75	80	88	88



II. 2023년 2분기 수출 전망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8p, 전기 대비 2.1p 하락

- '23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1.7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4.8p, 전기 대비로는 2.1p 하락
-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고, 전기 대비로도 3분기 연속 하락함에 따라 수출 경기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07.4	111.6	118.4	123.1	124.3	126.5	129.3	129.0	123.8	121.7
전년동기대비 증감(p)	4.6	9.3	26.7	19.9	16.9	14.9	10.9	5.9	△0.5	△4.8
전기대비 증감(p)	4.2	4.2	6.9	4.7	1.2	2.2	2.8	△0.3	△5.2	△2.1

D램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가 하락세, 신규 주문 감소 등 경기 위축 신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미국, 유로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성장률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1월부터 리오프닝을 시작한 중국은 경기 회복세가 아직 미진한 상황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1.7('22.2Q)→1.6(3Q)→1.9(4Q)→**1.2('23.1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분기 대비 2.6p 하락한 44.6을 기록하면서 기준선(50)을 하회, 6분기 연속 전기 대비 하락하며 경기 위축 가능성 심화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57.8('22.1Q)→52.6(2Q)→48.8(3Q)→47.2(4Q)→**44.6('23.1Q)**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23년 1분기에 원유·원자재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2021년 1분기 이후 8분기만에 전년동기 대비 **-3.8%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0.4% 상승**

- 가격 경쟁력 : 2023년 1분기 환율은 달러당 **1,276원**으로 전 분기인 2022년 4분기 달러당 1,359원보다는 **6.1%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

-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는 완화될 것이란 기대는 커졌으나, 국내 금리와의 차이 등으로 원화가치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205('22.1Q)→1,260(2Q)→1,338(3Q)→1,359(4Q)→**1,276('23.1Q)**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427('22.10)→ 1,364(11)→ 1,296(12)→ **1,247('23.1)→ 1,271(2)→ 1,306(3)**



- **수출물가** : D램·낸드플래시 재고 증가 등으로 반도체 단가 하락세가 당분간 유지되고 석유화학 공급과잉 등도 지속됨에 따라 수출물가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10.6('21.4Q)→112.6('22.1Q)→117.1(2Q)→109.4(3Q)→**104.1(4Q)**
- **D램**은 글로벌 경기 위축 및 재고 확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감산을 단행하고 있어 하반기 이후 재고량은 줄어들겠지만 연말까지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40('22.2Q)→1.90('23.1Q)→**1.75(2Q)→1.70(3Q)→1.60(4Q)**
- **유가**는 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을 결정하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원유 수요가 다시 증가되면서 유가는 전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5('22.1)→113.3(6)→77.2(12)→**80.4('23.1)→82.1(2)→78.5(3)**
- **주요 산업** : 글로벌 경기 하향으로 IT정보기기 및 석유제품 수요가 둔화되고, 석유화학 중국 자급률도 제고되는 등 부정적 수출 여건이 이어짐에 따라 주요 품목 수출 감소세 지속 전망
- **자동차**는 지난해부터 누적되어 온 대기 수요 이연,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으로 수출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2023년 2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2~13% 감소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신규주문 감소**, **수출물가 하락** 등이 이어져 **2023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13% 감소한 1,550억 달러 내외** 수준 전망
- 2분기부터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출액은 전기(1,515억 달러)보다는 증가하겠으나,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2분기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두자릿 수를 유지할 전망
※ 분기별 수출액(억달러) : ('22.1Q) 1,734→**(2Q) 1,771**→(3Q) 1,740→(4Q) 1,592→('23.1Q) 1,515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전년동기대비) : ('22.1Q) 18.4→(2Q) 13.0→(3Q) 5.8→(4Q) △9.9→('23.1Q) △12.6
- 다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내 투자 등이 부진할 경우 수출 감소폭은 더 확대될 수 있음.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화환율 불안정'(44.9%), '원재료 가격 상승'(43.3%) 순 응답

- 환율 변동성 확대로 **'원화환율 불안정'**(51.3%→44.9%)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38.5%→43.3%) 응답률도 전기 대비 상승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17.0%→27.6%)의 응답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2.4%→21.7%),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14.6%→4.5%) 응답률은 감소



I. 2023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1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12.6%, 전기 대비로는 4.8% 감소

- 202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734억 달러) 대비 12.6%, 전분기(1,592억 달러) 대비로는 4.8% 감소한 **1,515억 달러**
- 글로벌 경기둔화, 반도체 업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 기록
-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이,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이 감소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액	1,464	1,567	1,645	1,767	1,734	1,771	1,740	1,592	1,515
증감률(%)	12.5	42.0	26.5	24.5	18.4	13.0	5.8	△9.9	△12.6
수출물가지수	99.8	107.0	110.4	110.6	112.6	117.1	109.4	104.0	102.7
증감률(%)	8.7	22.3	22.0	18.1	12.8	9.5	△0.9	△6.0	△8.8
수입물가지수	107.4	113.6	119.1	123.4	131.5	136.7	128.0	122.2	121.7
증감률(%)	7.9	24.8	26.1	26.3	22.4	20.3	7.5	△1.0	△7.4
수출물량지수	116.4	118.5	119.9	126.6	124.3	121.1	124.8	119.8	112.4*
증감률(%)	5.0	19.4	4.9	4.5	6.8	2.2	4.1	△5.4	△9.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입물가지수(달러화 기준)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100

* 1분기 수출물량지수는 1~2월 평균



경기둔화 영향으로 반도체·석유화학은 위축, 친환경차 수요 증가로 자동차·이차전지는 호조세

- **반도체**(△40.0%)는 D램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누적, 수요 약세 영향으로 수출 감소 폭 확대
※ D램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3.50('22.1Q)→3.40(2Q)→2.80(3Q)→2.20(4Q)→**1.90('23.1Q)**
- **석유화학**(△22.9%)은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중국내 생산 확대에 의한 對 중국 수출 감소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일반기계**(△2.0%)는 중동 건설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 경기 회복세가 아직 미약해 對중국 건설기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 유지
- **자동차**(44.1%)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하고 부품 수급 문제로 지연됐던 전년 대기수요 공급이 이어지면서 호조세 유지. 3월에는 사상 최초로 월 60억 달러대 수출 기록.
- **석유제품**(0.3%)은 항공 수요 증가로 항공유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3월 대규모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은 축소
- **이차전지**(11.2%)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 배터리가 탑재된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 유지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3/4	4/4	'23. 1/4	1월	2월	3월
반도체	14.0	29.7	36.3	34.6	29.0	13.6	△3.9	△25.8	△40.0	△44.5	△42.5	△34.5
석유화학	26.1	80.0	64.0	54.1	27.6	6.9	△9.7	△25.1	△22.9	△24.9	△18.4	△25.1
일반기계	△6.8	16.8	7.7	2.7	11.5	0.3	0.2	△3.1	△2.0	△15.9	12.8	△0.8
자동차	31.4	74.7	6.5	4.9	△0.4	6.8	31.2	29.0	44.1	21.9	47.1	64.2
석유제품	△17.0	110.3	71.6	113.7	91.1	90.9	78.3	18.0	0.3	12.3	12.0	△16.6
선박류	28.2	11.8	△1.4	22.9	△45.3	△6.7	6.3	△22.5	2.9	86.3	△10.5	△24.3
이차전지	15.5	33.2	12.3	4.1	11.6	8.1	25.5	15.1	11.2	10.0	25.1	1.0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판매 호조로 미국·EU는 수출 증가세 유지, 경기둔화로 중국·아세안은 수출 감소폭 확대

- **중국 수출**(△29.9%)은 세계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등 對중국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위축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수출 감소폭 확대



- **미국**(3.5%)은 자동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외 이차전지 등과 같은 자동차 관련 품목 수요도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세 유지
- **아세안**(△19.1%)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가 많은 **베트남**(△25.2%)의 對세계 교역 부진으로 수출 위축 지속
- **EU**(3.9%)는 자동차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 유지
- **CIS**(7.3%)는 석유화학, 이차전지,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3월부터 수출이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3/4	4/4	'23 1/4	1월	2월	3월
중국	25.0	22.9	19.8	24.2	15.5	△1.0	△4.9	△22.9	△29.9	△31.4	△24.3	△33.4
미국	19.9	52.0	27.4	22.6	13.9	22.2	15.2	6.9	3.5	△6.0	16.5	1.6
일본	△4.9	33.0	28.9	27.6	15.1	8.9	0.0	△14.0	△10.2	△12.7	△5.4	△12.0
아세안	△4.8	47.4	26.4	28.2	38.4	26.1	15.4	△12.5	△19.1	△19.8	△16.1	△21.0
EU(27)	30.9	56.4	32.3	18.5	5.9	10.2	7.2	5.0	3.9	0.3	13.2	△1.2
중남미	4.5	84.1	45.0	17.3	26.5	11.7	△4.9	△16.5	△16.2	△25.0	△19.1	△5.6
CIS	△13.8	39.2	31.3	27.4	5.2	△43.3	△19.5	△9.5	7.3	△17.7	△13.6	86.9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원유 가격 안정 및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입 물가 하락폭 확대

- 1분기 수출물가(달러화 기준)는 원유·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원유정제처리제품 단가가 하락하고, 반도체 단가도 전년동기 대비 33.6% 하락하며 전년동기 대비 8.8%, 전기 대비 1.3% 하락
- 원유정제처리제품 수출 단가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4분기 이후 9분기만에 전년동기 대비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반도체 단가도 전기대비 11.7%, 전년동기 대비 33.6% 하락하는 등 수출물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95.6('22.1Q)→ 108.1(2Q)→ 96.9(3Q)→ 84.9(4Q)→ **80.3('23.1Q)**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전기 대비 4.6%, 전년동기 대비 22.6% 하락한 영향으로 전기 대비 1.9%, 전년동기 대비 13.0% 하락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업황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3p 하락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5p, 전기 대비로는 3p 하락한 88
- 높은 생산원가 영향으로 수출채산성이 하락하고, 수출물량 평가도 하락해 전반적인 수출업황 하락
- 수출업황 평가지수가 9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년 2분기 이후 처음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전기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생산원가 평가(전기대비 3p↓)가 하락하고, 수출단가 평가는 전기와 동일해, 종합적인 수출채산성 평가는 전년동기 대비 2p, 전기 대비 3p 하락한 88
- (수출물량 평가지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들어 전년동기 대비 14p, 전기 대비 8p 하락한 83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로는 1p 상승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2p 하락한 94 기록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20				'21				'22				'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70	69	98	97	104	99	94	101	93	94	90	91	88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80	77	97	96	97	96	95	100	90	94	92	91	88
수출단가 평가지수	100	97	101	100	111	116	118	116	125	119	115	105	105
생산원가 평가지수	106	103	106	109	127	133	132	133	144	135	129	117	114
수출물량 평가지수	68	68	100	100	108	103	98	107	97	97	89	91	83
자금사정 평가지수	83	83	97	97	101	97	96	99	93	94	93	96	94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 · 산업별 ·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

기업규모별 : 대기업(99p→88p), 중소기업(91p→88p) 모두 전기 대비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는 대기업은 2p 상승, 중소기업은 3p 하락했으나, 수출물량은 대기업(92p→83p), 중소기업(90p→83p) 모두 하락



산업별 : 섬유(94p→74p), 신재생에너지(100p→86p) 등은 하락, 선박(89p→102p), 플랜트(93p→100p) 등은 상승

- 수출채산성 평가도 섬유(94p→78p), 신재생에너지(100p→91p), 철강·비철금속(93p→85p) 등은 하락, 선박(93p→102p), 석유화학(82p→88p), 플랜트(89p→92p) 등은 상승
- 수출물량 평가는 해운(97→70), 섬유(96→72), 신재생에너지(111p→91p), 전기전자(92p→82p) 등은 하락, 플랜트(87p→94p) 등은 상승

수출지역별 : 북미(94p→86p), 중국(90p→84p), 유로존(91p→84p)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업황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는 북미(98p→87p), 유로존(89p→84p), 중국(85p→82p) 등 하락, 동남아(85p→91p) 상승
- 수출물량 평가는 북미(93p→81p), 중국(90p→78p), 유로존(86p→78p)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2. 4/4	'23. 1/4	'22. 4/4	'23. 1/4	'22. 4/4	'23. 1/4
전 체		91	88	91	88	91	83
규모	대 기 업	99	88	88	90	92	83
	중 소 기 업	91	88	91	88	90	83
	전 기 전 자	96	91	95	91	92	82
산업	기 계 류	89	90	89	85	89	84
	철 강 / 비 철 금 속	89	89	93	85	88	80
	석 유 화 학	89	85	82	88	82	81
	자 동 차	92	92	96	94	95	95
	섬 유 류	94	74	94	78	96	72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93	100	89	92	87	94
	신 재 생 에 너 지	100	86	100	91	111	91
	선 박	89	102	93	102	96	96
	문 화 콘 텐 츠	105	75	95	85	95	75
	해 운	90	80	87	83	97	70
수출 지역	북 미	94	86	98	87	93	81
	중 국	90	84	85	82	90	78
	일 본	89	88	93	96	93	87
	유 로 존	91	84	89	84	86	78
	동 남 아	89	90	85	91	86	85
	중 남 미	98	105	98	98	108	105
	중 동	88	94	81	84	88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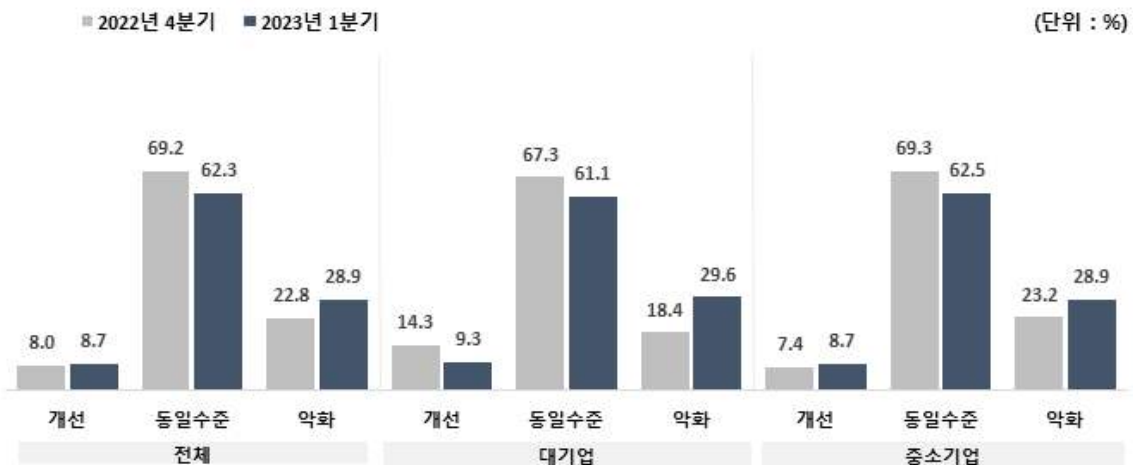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가.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515개사)

수출업황 '개선' 8.7%, '동일 수준' 62.3%, '악화' 28.9%로 악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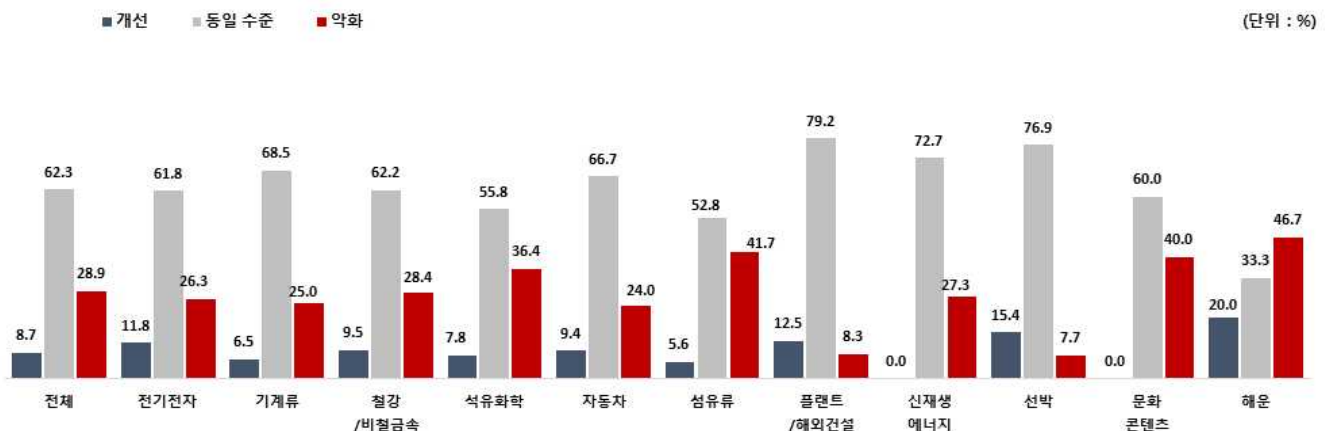
- 전기 대비 '동일 수준' 응답은 6.9%p 감소한 반면 '악화' 응답은 6.1%p 증가
- (규모별) 전기 대비 '악화' 응답은 대기업 11.3%p, 중소기업 5.6%p 증가

1분기 수출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 (산업별) '개선' 응답은 선박(4.3%→15.4%), 플랜트(4.3%→12.5%) 등에서 증가, '악화' 응답은 문화콘텐츠(0%→40.0%), 섬유(17.1%→41.7%), 해운(26.7%→46.7%), 석유화학(26.6%→36.4%) 등에서 증가

1분기 수출업황 평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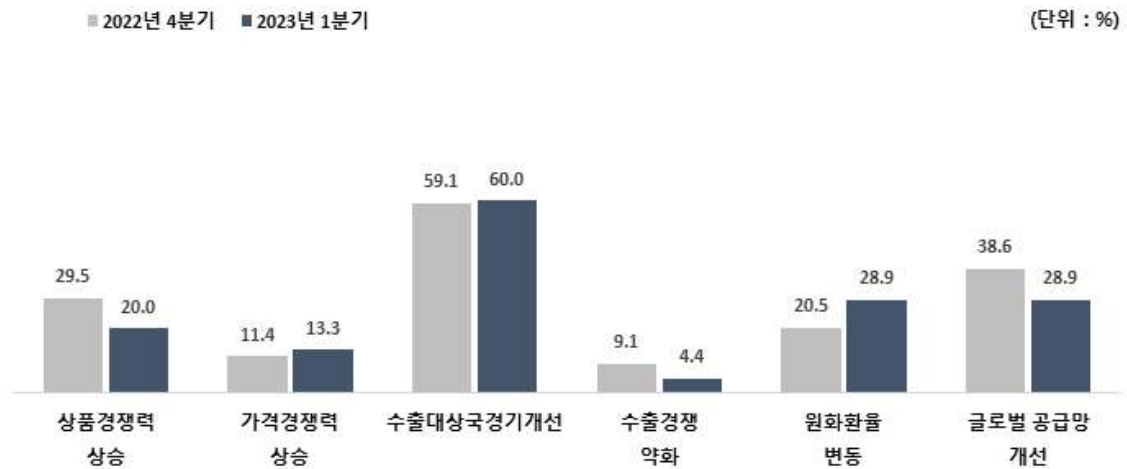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51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5개사, 복수응답)

'수출대상국 경기개선'(60.0%), '원화환율 변동' 및 '글로벌 공급망 개선'(28.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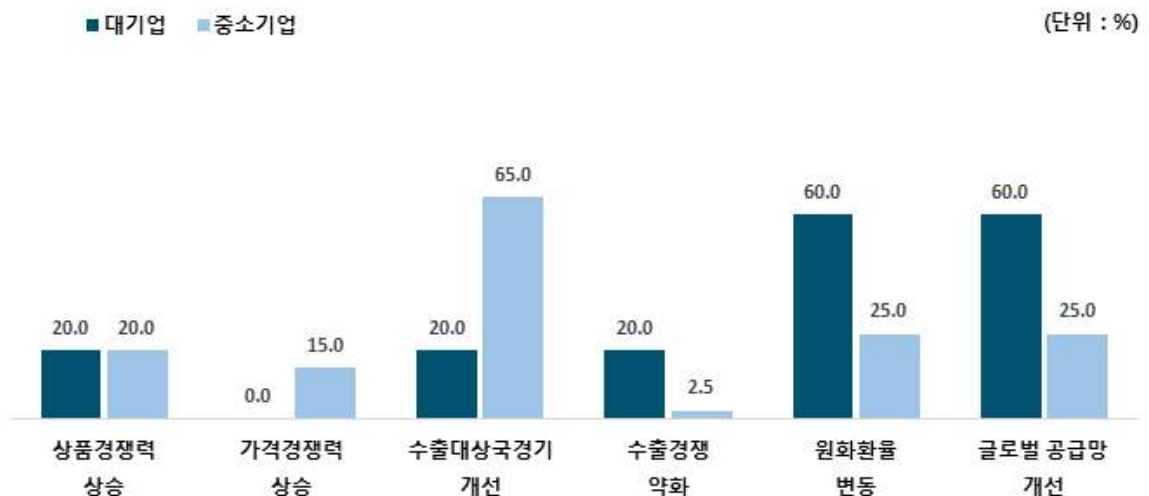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59.1%→60.0%)이 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비중 차지, 원화가치 하락세가 유지됨에 따라 '원화환율 변동'(20.5%→28.9%) 응답이 증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개선'(38.6%→28.9%) 응답은 감소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전체



- (규모별) 중소기업은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65.0%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대기업은 '원화환율 변동'(60.0%), '글로벌 공급망 개선'(60.0%)을 가장 많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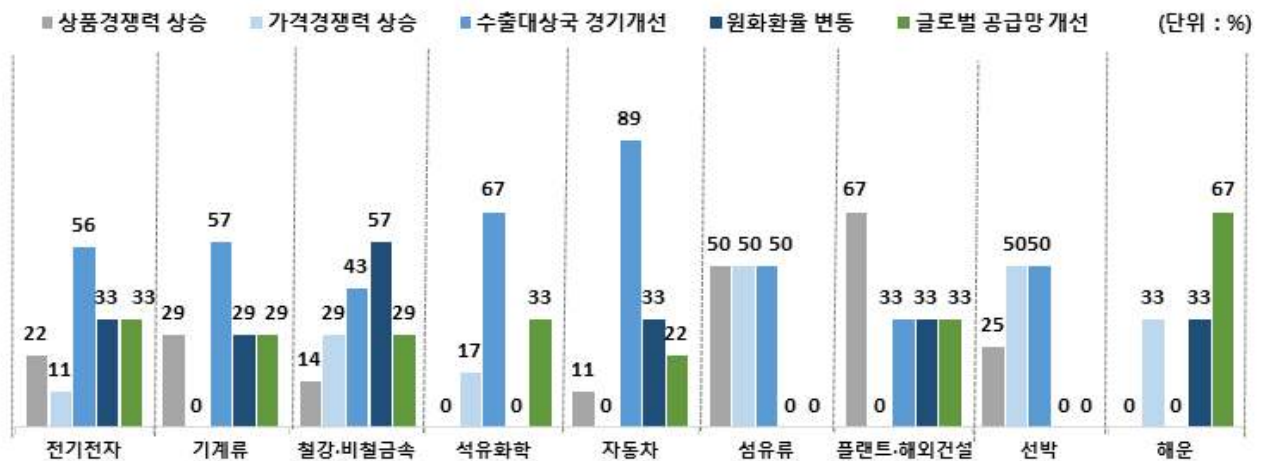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기업 규모별





- (산업별) 자동차(89%), 석유화학(67%), 기계류(57%), 전기전자(56%) 등이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
- '글로벌 공급망 개선'은 해운(67%) 등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 '원화환율 변동'은 철강/비철금속(57%) 등에서 높게 응답
- '상품 경쟁력 상승'은 플랜트(67%), 섬유류(50%) 등에서, '가격 경쟁력 상승'은 선박(50%), 섬유류(50%) 등에서 높게 응답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산업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원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승	가격경쟁력 상 승	수출대상국 경 기 개 선	수 출 경 쟁 화	원 화 환 율 동	글로벌 공 개	별 로 급 망 선
전 체		20.0	13.3	60.0	4.4	28.9	28.9	
규모	대 기 업	20.0	0.0	20.0	20.0	60.0	60.0	
	중 소 기 업	20.0	15.0	65.0	2.5	25.0	25.0	
산업	전 기 전 자	22.2	11.1	55.6	0.0	33.3	33.3	
	기 계 류	28.6	0.0	57.1	0.0	28.6	28.6	
	철 강 / 비 철	14.3	28.6	42.9	14.3	57.1	28.6	
	석 유 화 학	0.0	16.7	66.7	16.7	0.0	33.3	
	자 동 차	11.1	0.0	88.9	0.0	33.3	22.2	
	섬 유 류	50.0	50.0	50.0	50.0	0.0	0.0	
	플랜트/해건	66.7	0.0	33.3	0.0	33.3	33.3	
	선 박	25.0	50.0	50.0	0.0	0.0	0.0	
	해 운	0.0	33.3	0.0	0.0	33.3	66.7	
수출 지역	북 미	0.0	18.2	45.5	18.2	36.4	27.3	
	중 국	20.0	20.0	60.0	0.0	20.0	40.0	
	일 본	25.0	25.0	50.0	0.0	75.0	25.0	
	유 로 존	20.0	0.0	40.0	0.0	20.0	60.0	
	동 남 아	12.5	12.5	87.5	0.0	12.5	37.5	
	중 남 미	33.3	0.0	66.7	0.0	33.3	16.7	
	중 동	100.0	0.0	50.0	0.0	0.0	0.0	

주 : 전체 설문 51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45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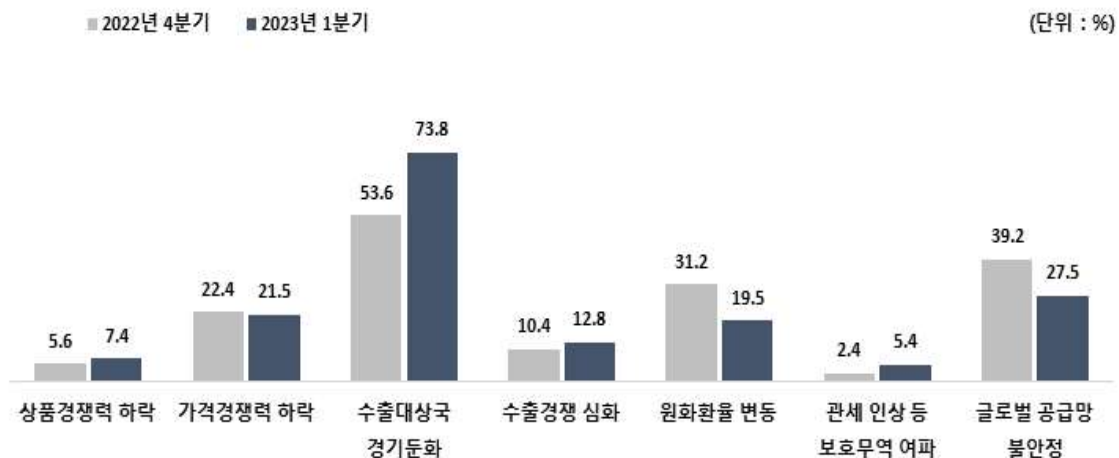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515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49개사, 복수응답)

'수출대상국 경기둔화'(73.8%),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27.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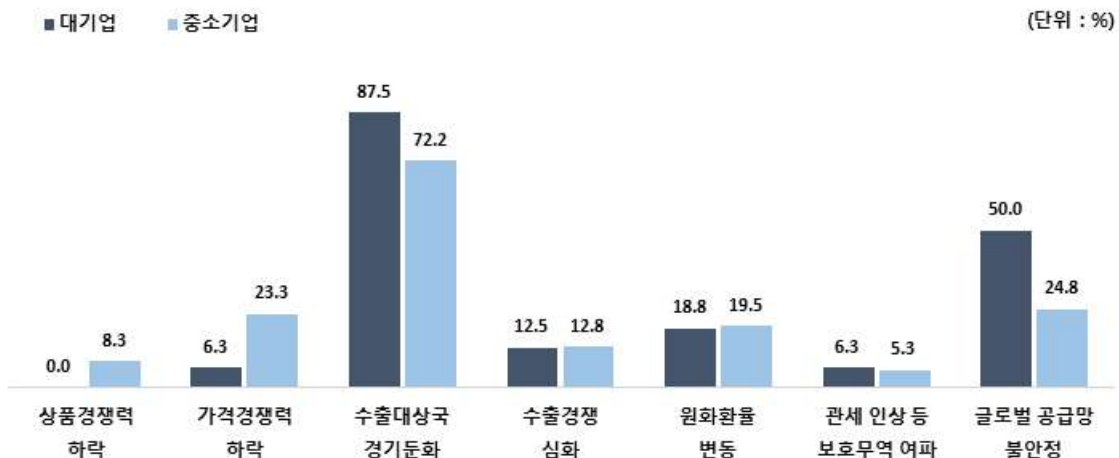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53.6%→73.8%)가 전기에 비해 **20.2%p 상승**하며 수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39.2%→27.5%)은 전기보다 11.7%p나 줄어들었으나 두 번째로 많이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중동(100%), 북미(90.7%), 일본(76.9%), 중국(67.6%), 유로존(66.7%)** 순으로 많이 응답했으며, 특히 **북미(62.1%→90.7%)** 응답률이 전기 대비 크게 증가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전체



- (규모별) 대기업(87.5%)과 중소기업(72.2%)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두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대기업 50.0%, 중소기업 24.8% 순으로 응답

1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기업규모별





- (산업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자동차(82.6%), 기계류(77.8%), 섬유류(73.3%), 석유화학(71.4%), 전기전자(70.0%) 산업에서 많이 응답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선박(50.0%), 섬유류(46.7%), 전기전자(35.0%)에서 많이 응답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원인

(단위 : %)

구분		상 경 하	품 경 하	가 경 하	격 경 하	수 대 상 국 경 기 둔 화	수 경 심	출 경 심	원 환 변	화 울 동	관 세 인 상 등 보 호 무 역	글 로 벌 공 급 망 불 안 정
전 체		7.4		21.5		73.8	12.8		19.5		5.4	27.5
규 모	대 기 업	0.0		6.3		87.5	12.5		18.8		6.3	50.0
	중 소 기 업	8.3		23.3		72.2	12.8		19.5		5.3	24.8
산 업	전 기 전 자	0.0		15.0		70.0	5.0		30.0		10.0	35.0
	기 계 류	14.8		18.5		77.8	18.5		14.8		3.7	18.5
	철 강 / 비 철	4.8		33.3		81.0	28.6		9.5		9.5	23.8
	석 유 화 학	17.9		21.4		71.4	7.1		21.4		10.7	32.1
	자 동 차	4.3		17.4		82.6	4.3		26.1		4.3	17.4
	섬 유 류	6.7		20.0		73.3	6.7		13.3		0.0	46.7
	플 란 트 / 해 건	0.0		0.0		100.0	50.0		0.0		0.0	0.0
	신 재 생 에 너 지	0.0		66.7		33.3	0.0		33.3		0.0	0.0
	선 박	0.0		0.0		100.0	0.0		0.0		0.0	50.0
	문 화 콘 텐 츠	25.0		25.0		25.0	0.0		50.0		0.0	25.0
수출 지역	해 운	0.0		14.3		57.1	28.6		14.3		0.0	42.9
	북 미	9.3		9.3		90.7	7.0		20.9		7.0	23.3
	중 국	5.9		20.6		67.6	8.8		20.6		2.9	38.2
	일 본	7.7		7.7		76.9	15.4		23.1		7.7	15.4
	유 로 존	0.0		29.2		66.7	20.8		25.0		8.3	25.0
	동 남 아	12.0		36.0		60.0	16.0		12.0		4.0	28.0
	중 남 미	0.0		25.0		50.0	0.0		25.0		0.0	50.0
	중 동	0.0		50.0		100.0	50.0		0.0		0.0	0.0

주 : 전체 설문 515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49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II. 2023년 2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8p, 전기 대비 2.1p 하락

- '23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1.7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4.8p, 전기 대비로는 2.1p 하락
- 수출선행지수가 2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고, 전기 대비로도 3분기 연속 하락함에 따라 수출 경기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제조업 신규주문 등은 전 분기에 이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수출용 수입액은 전기 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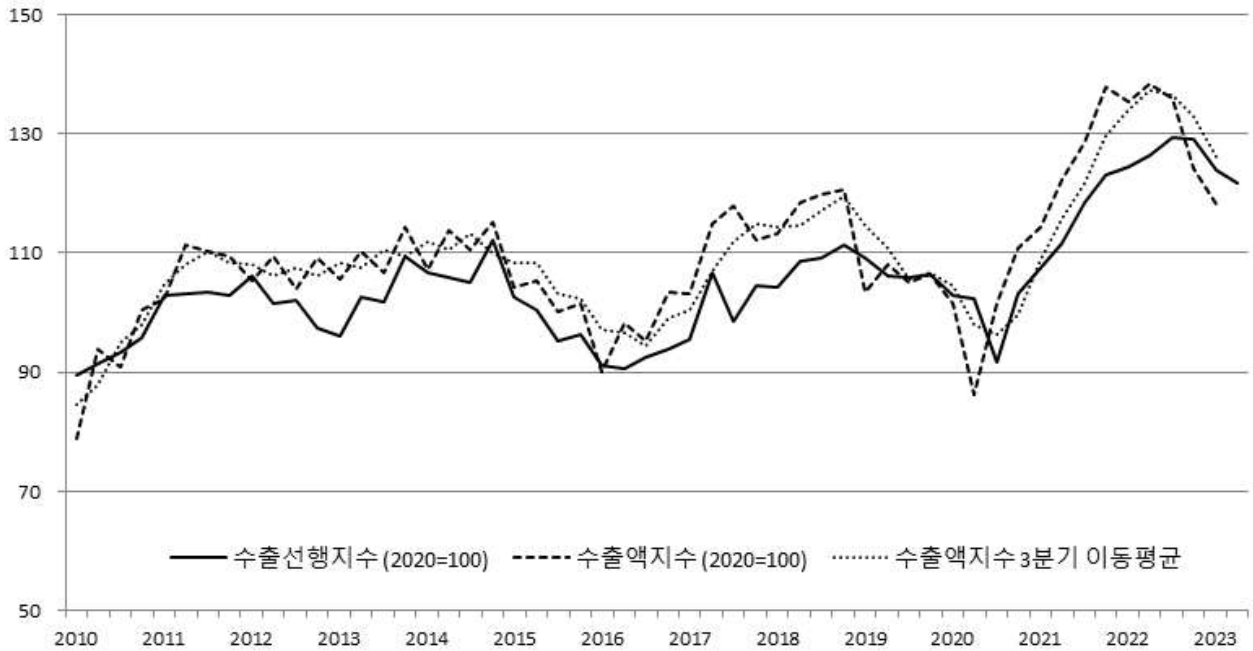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선행지수	107.4	111.6	118.4	123.1	124.3	126.5	129.3	129.0	123.8	121.7
전년동기대비 증감(p)	4.6	9.3	26.7	19.9	16.9	14.9	10.9	5.9	△0.5	△4.8
전기대비 증감(p)	4.2	4.2	6.9	4.7	1.2	2.2	2.8	△0.3	△5.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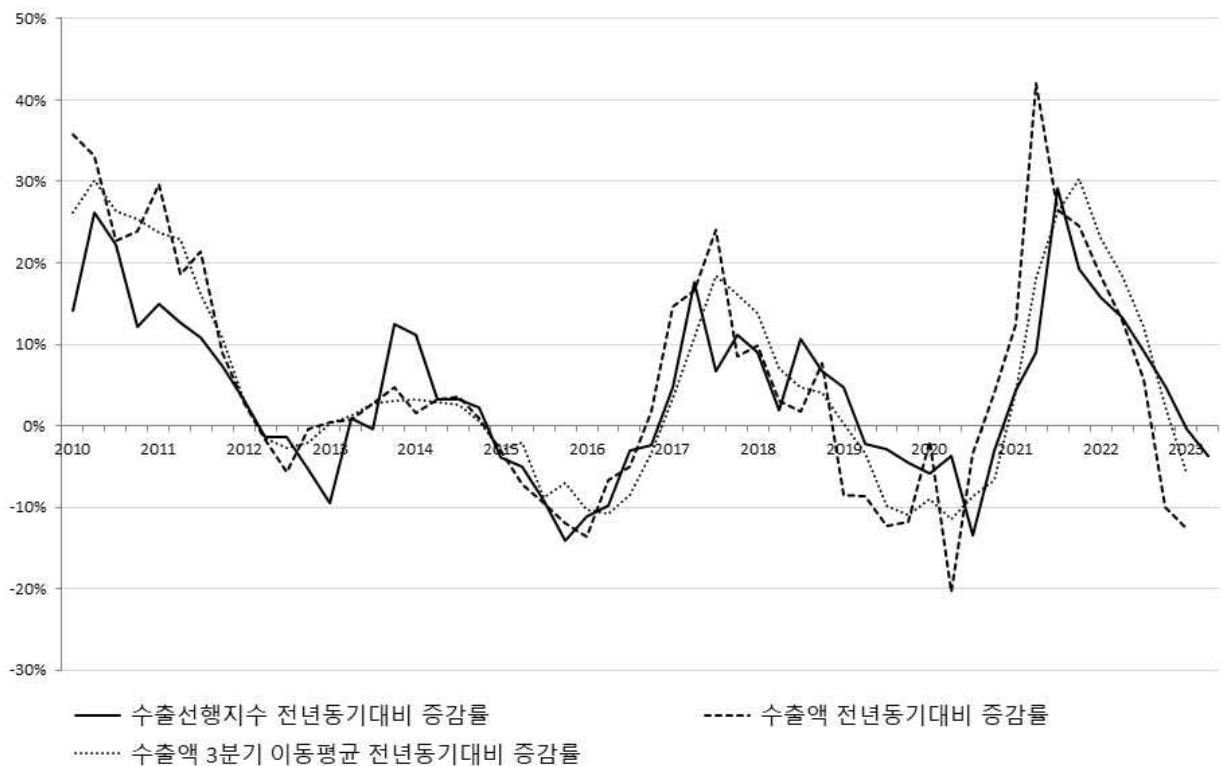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성장 둔화 및 D램 가격 하락으로 수출물가 하락세, 신규 주문 감소 등 경기 위축 신호 증가

- 수출대상국 경기 : 미국, 유로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성장을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1월부터 리오프닝을 시작한 중국은 경기 회복세가 아직 미진한 상황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1.7('22.2Q)→1.6(3Q)→1.9(4Q)→**1.2('23.1Q)**

- WTO 상품무역지수 : 수출 신규 주문, 항공 화물량 등이 감소하면서 전분기(100.0)를 하회한 96.2 기록, 무역 위축 시사

※ **Goods Trade Barometer***(WTO) : 99.5('21.4Q)→98.7('22.1Q)→99.0(2Q)→100.0(3Q)→**96.2(4Q)**

* 2022년 6월=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 하회하면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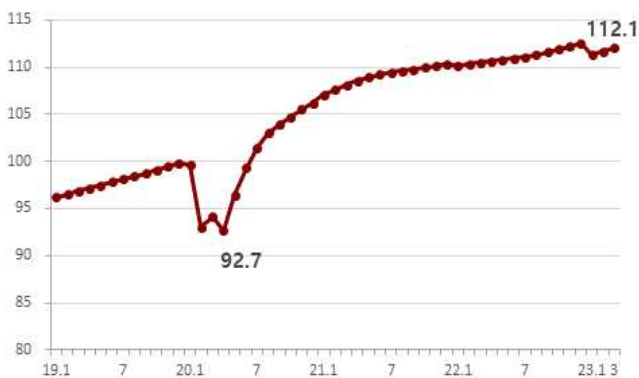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분기 대비 2.6p 하락한 44.6을 기록하면서 기준선(50)을 하회, 6분기 연속 전기 대비 하락하며 경기 위축 가능성 심화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에 대해 3~6개월 선행성을 나타냄.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57.8('22.1Q)→52.6(2Q)→48.8(3Q)→47.2(4Q)→**44.6('23.1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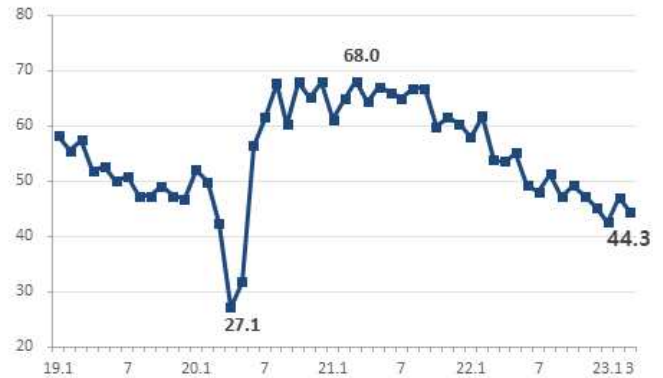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49.2('22.10)→47.2(11)→45.2(12)→**42.5('23.1)→47.0(2)→44.3(3)**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주 : OECD 선행지수 활용, 성장을 반영 (2020=100)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원유·원자재'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2021년 1분기 이후 8분기만에 전년동기 대비 **-3.8% 하락**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0.4% 상승**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20=100): 182.5('22.1Q)→199.0(2Q)→206.0(3Q)→174.9(4Q)→**175.6('23.1Q)**

※ 수출용 수입액지수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52.7('22.1Q)→45.1(2Q)→33.3(3Q)→4.4(4Q)→**△3.8('23.1Q)**



- **가격 경쟁력** : 2023년 1분기 환율은 달러당 **1,276원**으로 전 분기인 2022년 4분기 달러당 1,359원 보다는 **6.1% 하락**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
-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는 완화될 것이란 기대는 커졌으나, 국내 금리와의 차이 등으로 원화가치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205('22.1Q)→1,260(2Q)→1,338(3Q)→1,359(4Q)→**1,276('23.1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427('22.10)→ 1,364(11)→ 1,296(12)→ **1,247('23.1)→ 1,271(2)→ 1,306(3)**
- **수출물가** : D램·낸드플래시 재고 증가 등으로 반도체 단가 하락세가 당분간 유지되고 석유 화학 공급과잉 등도 지속됨에 따라 수출물가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
 -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110.6('21.4Q)→112.6('22.1Q)→117.1(2Q)→109.4(3Q)→**104.1(4Q)**
 - ※ 수출물가 상승률(%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18.1('21.4Q)→12.8('22.1Q)→9.5(2Q)→△0.9(3Q)→**△5.9(4Q)**
- **D램**은 글로벌 경기 위축 및 재고 확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감산을 단행하고 있어 하반기 이후 재고량은 줄어들겠지만 연말까지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 ※ D램 가격 전망(\$,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3.40('22.2Q)→1.90('23.1Q)→1.75(2Q)→1.70(3Q)→1.60(4Q)
- **유가**는 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을 결정하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원유 수요가 다시 증가되면서 유가는 전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83.5('22.1)→113.3(6)→77.2(12)→**80.4('23.1)→82.1(2)→78.5(3)**

D램 가격 전망



자료 : Omdia (2023.3월)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가격)

- **주요 산업** : 글로벌 경기 하향으로 IT정보기기 및 석유제품 수요가 둔화되고, 석유화학의 중국 자급률도 제고되는 등 부정적 수출 여건이 이어짐에 따라 주요 품목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반도체는 주요 업체 감산으로 하반기 이후 공급 과잉은 다소 해소되겠으나 가격 하락세는 2023년말까지 지속됨에 따라 수출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
- 자동차는 지난해부터 누적되어 온 대기 수요 이연,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으로 수출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2023년 2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2~13% 감소 전망

- 수출선행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신규주문 감소, 수출물가 하락 등이 이어져 2023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13% 감소한 1,550억 달러 내외 수준 전망
- 2분기부터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출액은 전기(1,515억 달러)보다는 증가하겠으나,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2분기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두자릿 수를 유지할 전망
 -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2.1Q) 1,734→(2Q) 1,771→(3Q) 1,740→(4Q) 1,592→('23.1Q) 1,515
 -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2.1Q) 18.4→(2Q) 13.0→(3Q) 5.8→(4Q) △9.9→('23.1Q) △12.6
- 다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내 투자 등이 부진할 경우 수출 감소폭은 더 확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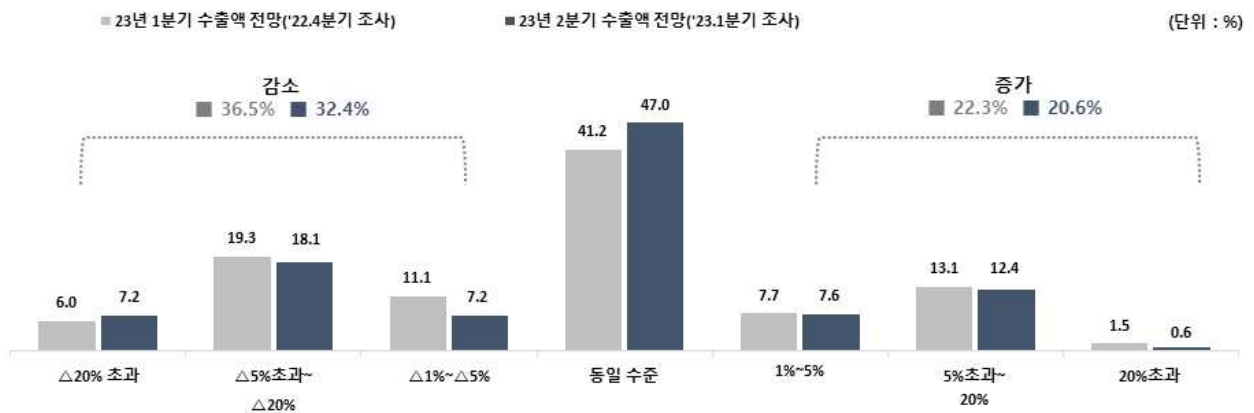


2. 수출기업의 '23년 2분기 수출액 전망 (응답 기업 515개사)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전망 32.4%, '증가' 전망 20.6%로 '감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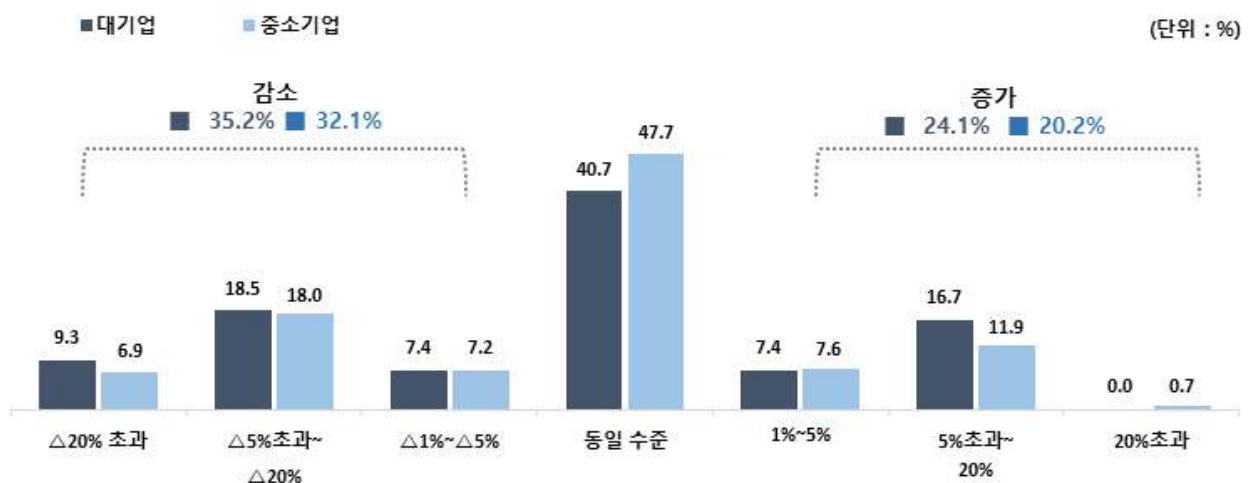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감소'(36.5%→32.4%)가 전기 보다 4.1%p 줄어들었지만, '감소'(22.3%→20.6%)보다 높아 2023년 2분기 수출은 감소 전망이 우세
- '동일 수준' 전망 응답률(41.2%→47.0%)으로 전기 대비 증가

'23년 2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 (규모별) 대기업(26.5%→35.2%)은 '감소' 전망이 전기에 비해 8.7%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37.5%→32.1%)은 5.4%p 감소해 대기업의 수출 전망이 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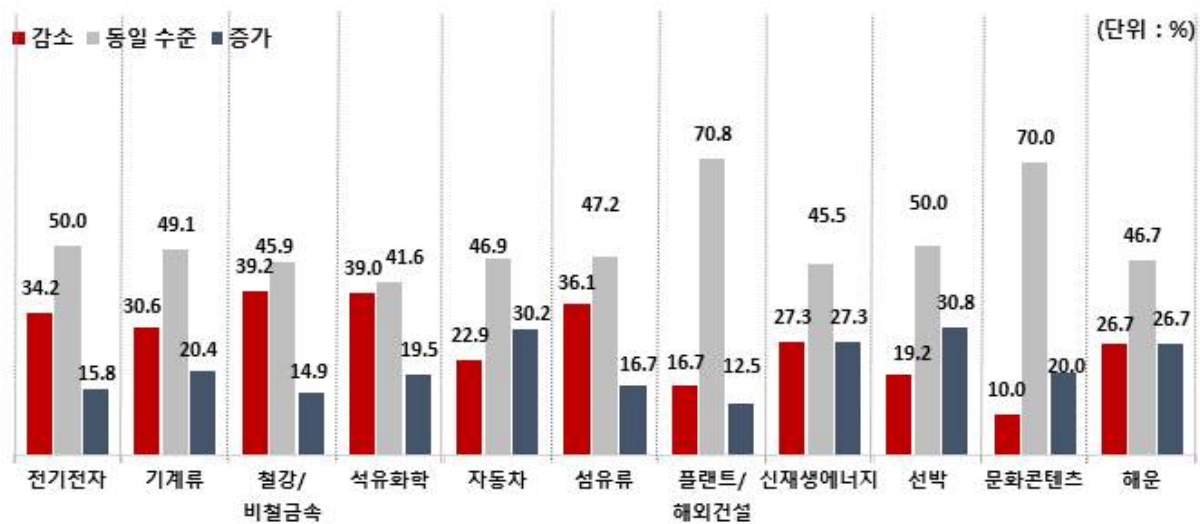
'23년 2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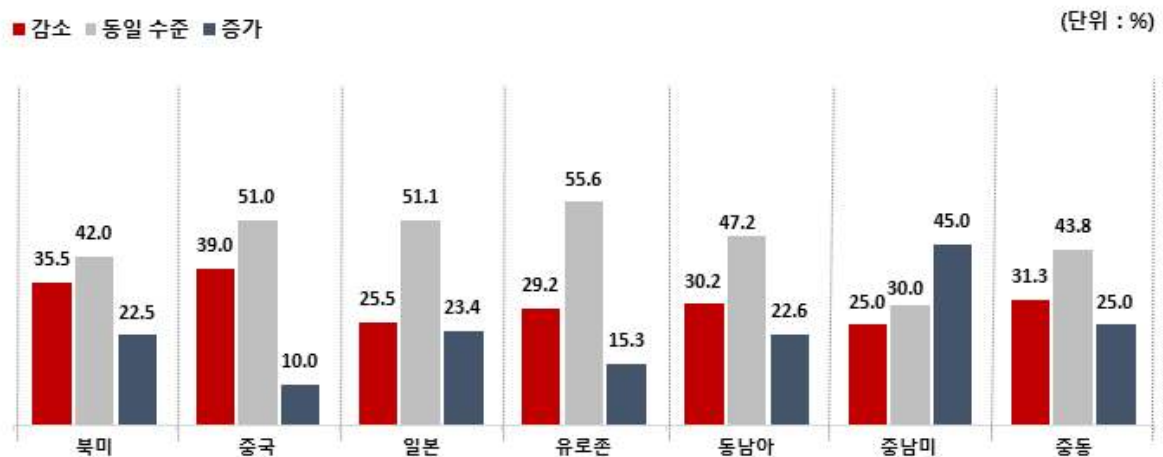
- (산업별) 철강/비철금속(39.2%), 석유화학(39.0%), 섬유류(36.1%) 등은 타산업 대비 '감소' 전망이 높은 편
- 전년동기 대비 '증가' 전망 응답 비율이 높은 산업은 선박(30.8%), 자동차(30.2%), 신재생에너지(27.3%)

'23년 2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 (수출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중국(39.0%), 북미(35.5%) 등
- 반면 '증가' 전망이 높은 지역은 중남미(45.0%), 중동(25.0%)

'23년 2분기 수출액 전망 : 수출 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23년 2분기 수출액 증감률 전망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7.2	18.1	7.2	47.0	7.6	12.4	0.6
규 모	대 기 업	9.3	18.5	7.4	40.7	7.4	16.7	0.0
	중 소 기 업	6.9	18.0	7.2	47.7	7.6	11.9	0.7
산 업	전 기 전 자	3.9	25.0	5.3	50.0	9.2	6.6	0.0
	기 계 류	7.4	17.6	5.6	49.1	7.4	13.0	0.0
	철강/비철금속	8.1	18.9	12.2	45.9	4.1	9.5	1.4
	석 유 화 학	3.9	24.7	10.4	41.6	10.4	7.8	1.3
	자 동 차	7.3	11.5	4.2	46.9	10.4	18.8	1.0
	섬 유 류	8.3	19.4	8.3	47.2	2.8	13.9	0.0
	플 란 트 / 해 건	12.5	4.2	0.0	70.8	4.2	8.3	0.0
	신 재 생 에 너 지	9.1	18.2	0.0	45.5	9.1	18.2	0.0
	선 박	3.8	7.7	7.7	50.0	11.5	19.2	0.0
	문 화 콘 텐 츠	0.0	10.0	0.0	70.0	0.0	20.0	0.0
	해 운	13.3	6.7	6.7	46.7	6.7	20.0	0.0
수출 지역	북 미	7.2	19.6	8.7	42.0	8.0	14.5	0.0
	중 국	9.0	23.0	7.0	51.0	5.0	5.0	0.0
	일 본	6.4	8.5	10.6	51.1	10.6	10.6	2.1
	유 로 존	8.3	9.7	11.1	55.6	4.2	11.1	0.0
	동 남 아	3.8	22.6	3.8	47.2	9.4	13.2	0.0
	중 남 미	10.0	15.0	0.0	30.0	20.0	20.0	5.0
	중 동	12.5	12.5	6.3	43.8	0.0	25.0	0.0

주 : 총 51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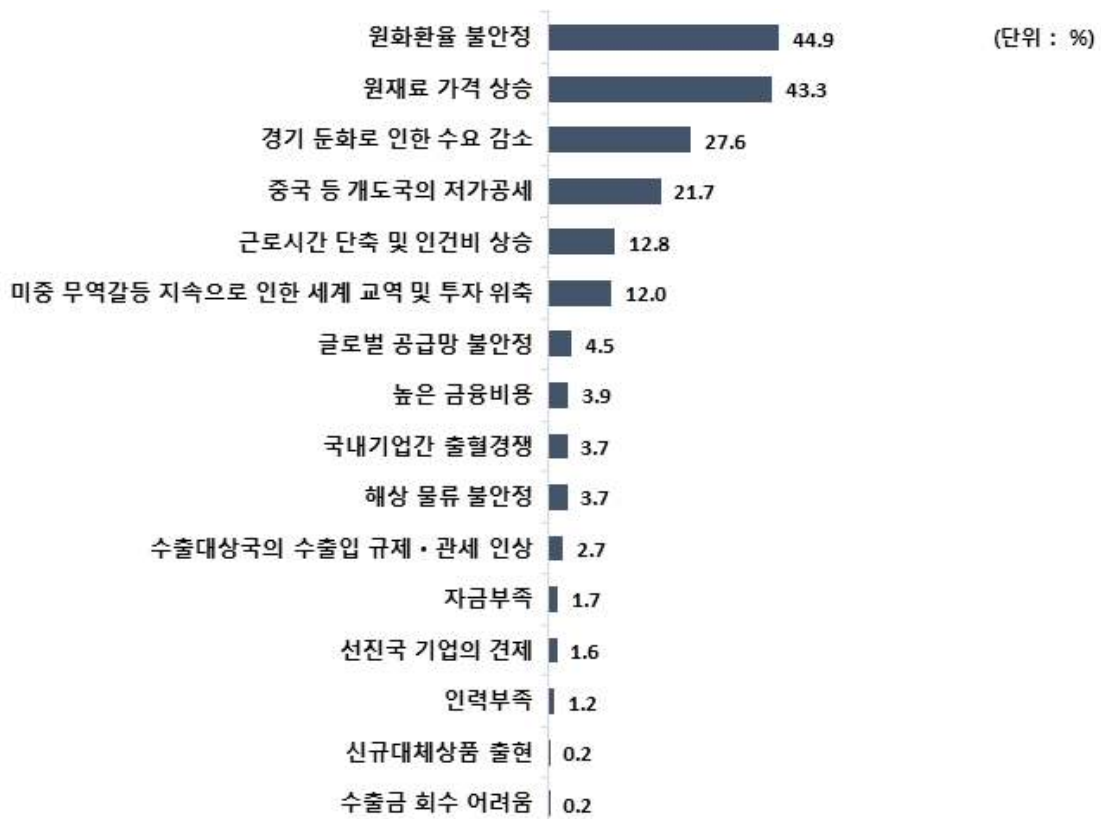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화환율 불안정’(44.9%), ‘원재료 가격 상승’(43.3%) 순 응답

- 환율 변동성 확대로 ‘원화환율 불안정’(51.3%→44.9%) 응답이 전기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38.5%→43.3%) 응답률도 전기 대비 상승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17.0%→27.6%)의 응답률이 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22.4%→21.7%),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14.6%→4.5%) 응답률은 감소

‘23년 1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515, 1순위+2순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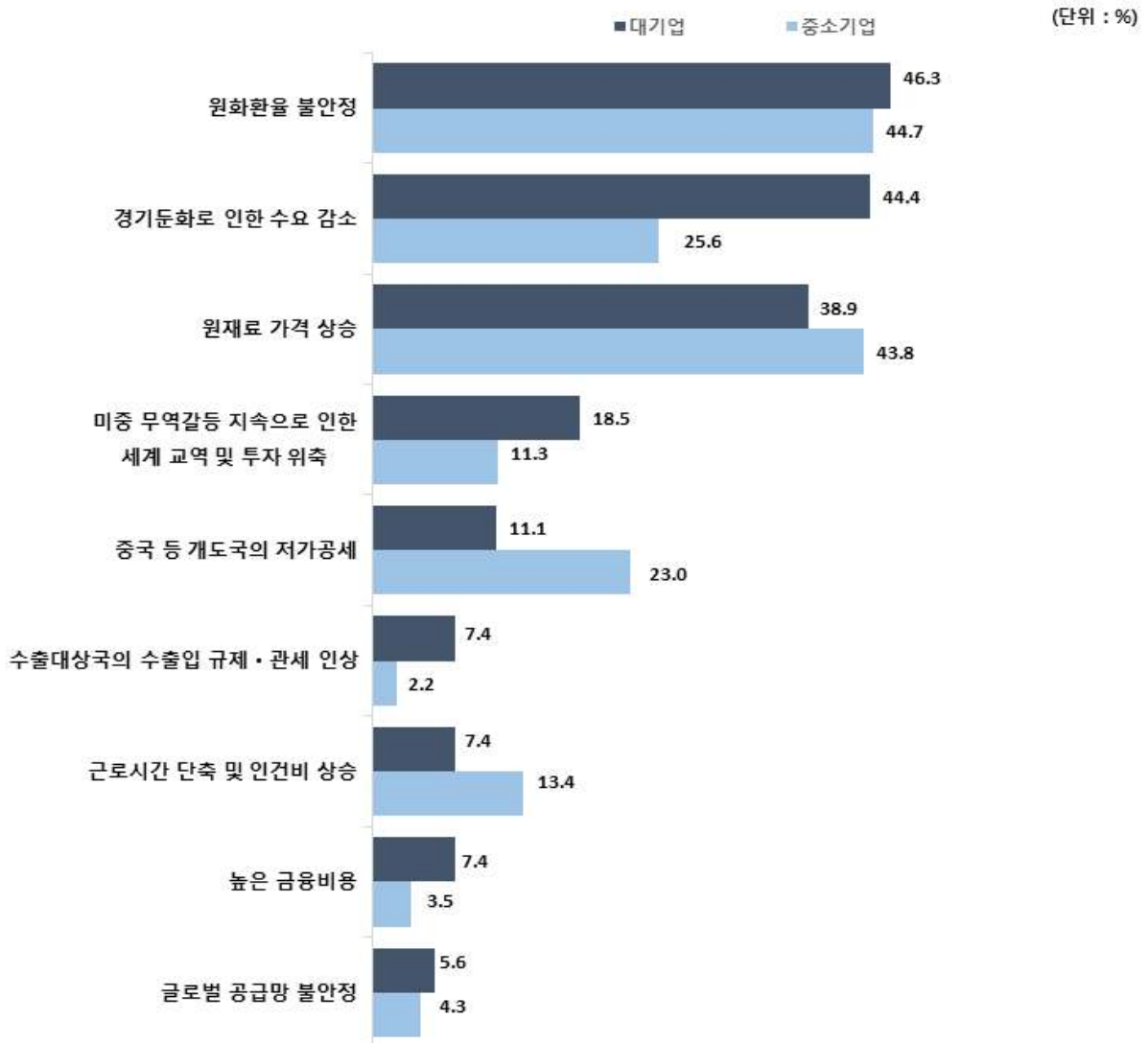
- (산업별) ‘원화환율 불안정’은 석유화학(54.5%), 플랜트/해건(54.2%), 선박(50.0%), 문화콘텐츠(50.0%) 등에서 높게 응답
- ‘원재료 가격 상승’은 신재생에너지(63.6%), 플랜트/해건(54.2%), 기계류(52.8%) 등에서 높게 응답
-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는 섬유류(36.1%), 전기전자(32.9%)에서,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는 철강/비철금속(32.4%), 섬유류(27.8%)에서 높게 응답



- (규모별) 대기업(67.3%→46.3%)과 중소기업(49.7%→44.7%) 모두 '원화환율 불안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대기업의 응답률은 크게 감소
- 중소기업은 두 번째로 '원재료 가격 상승'(43.8%) 응답률이 높은 반면, 대기업은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44.4%)를 높게 응답

'23년 1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515, 1순위+2순위 복수응답)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화환율 불안정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감소	원재료 가격 상승	미중갈등 등으로 세계 교역/투자 위축	중국 등 개도국 저가공세	수출대상국의 수출입 규제, 관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높은 금융 비용
전 체		44.9	27.6	43.3	12.0	21.7	2.7	12.8	3.9
규 모	대 기 업	46.3	44.4	38.9	18.5	11.1	7.4	7.4	7.4
	중 소 기 업	44.7	25.6	43.8	11.3	23.0	2.2	13.4	3.5
산 업	전 기 전 자	46.1	32.9	40.8	18.4	18.4	1.3	11.8	1.3
	기 계 류	45.4	28.7	52.8	9.3	21.3	0.9	13.0	4.6
	철 강 /비 철	43.2	27.0	39.2	12.2	32.4	8.1	12.2	2.7
	석 유 화 학	54.5	26.0	39.0	16.9	24.7	1.3	11.7	1.3
	자 동 차	41.7	18.8	40.6	12.5	14.6	3.1	15.6	9.4
	섬 유 류	41.7	36.1	41.7	11.1	27.8	0.0	11.1	8.3
	플랜트/해건	54.2	20.8	54.2	8.3	8.3	0.0	16.7	4.2
	신재생에너지	45.5	27.3	63.6	18.2	18.2	0.0	0.0	0.0
	선 박	50.0	26.9	42.3	11.5	11.5	7.7	11.5	3.8
	문화콘텐츠	50.0	30.0	40.0	0.0	0.0	0.0	0.0	0.0
	해 운	26.7	26.7	46.7	13.3	26.7	13.3	13.3	0.0
수출 지역	북 미	42.8	26.1	47.1	10.9	21.7	2.9	15.9	5.8
	중 국	43.0	33.0	44.0	12.0	28.0	1.0	9.0	1.0
	일 본	51.1	27.7	40.4	2.1	21.3	2.1	21.3	4.3
	유 로 존	51.4	27.8	36.1	20.8	18.1	4.2	8.3	2.8
	동 남 아	46.2	28.3	43.4	11.3	17.0	3.8	11.3	3.8
	중 남 미	25.0	25.0	25.0	15.0	25.0	5.0	10.0	5.0
	중 동	50.0	18.8	50.0	6.3	31.3	0.0	6.3	12.5

주 : 총 515개사 <북수응답: 1순위+2순위>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3년 4월 3일~7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515개 업체 (대기업 54개, 중소기업 461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	출	업	황
평	가	지	수
수	출	채	산
성	평	가	지
수	출	단	가
평	가	지	수
생	산	원	가
평	가	지	수
수	출	물	량
평	가	지	수
자	금	사	정
평	가	지	수

3.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20년=100 기준으로 산출 (2023년 4월 수정)
- 2023년 1월부터 OECD 경기선행지수가 OECD 국가 전체에서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발표됨에 따라 변수 변화에 맞춰 추정 모형도 소폭 수정됨.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가 발표하는 G7 및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수출	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실효환율
산업	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수요 기계수주액